

NAVER 카페

우리원의 활동 사진을 보여줄 때.... | 원장 자료



하늘을 나는 그림책(sim1****)

<https://cafe.naver.com/picturebookedu/938>

우리 원의 활동사진은 우리원에 다니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활동 사진을 올려주면

관심있는 학부모들에게 좋은 자료가 됩니다.

활동사진은 양이 중요한게 절대 아닙니다.

오랜만에 활동 사진을 보면서..... 글 남깁니다.

1.

수업은 교사들이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관리자가 직접 수업을 주도하거나, 활동방법 하나 하나를 다 알고 체크하지 않고 계획안의 수업을 머릿속에 전체적으로 인지하고 아이들이 이 계획안 수업과정을 통해 어떤 행동특성이 보여야는지 그것이 성과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딱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즉 연수를 받고 난 후 활동방법 하나 하나를 준비하고 알리고 하지 마시고

그 연수 계획안을 보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십시오.

내가 이연령에 확인해야할 것이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확인할 부분

교사에게 확인할 부분

이런식으로 나눠서 나름대로 정리하도록합니다.

사진을 보면.....

교사들이 찍은 사진을 관리자가 보고 이 것이 어떤 활동인지, 이 수업의 흐름이 사진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셔야합니다.

-사진은 항상 각 원의 메인 컴퓨터에 각반별 폴더 만들고 그림책명, 에듀이벤트명 폴더 만들어 교사들이 찍은 사진, 관리자가 찍은 사진을 모두 모으도록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은 그 폴더에 사진을 관리자가 보시면서 삭제할 사진은 삭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진은 될 수있으면 활동별 순서별로 정리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파일명을 마법침대만들기1,2...이런식으로)

2

관리자는 아이들이 활동하는 수업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연수를 들은 후 꼭!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정리된 그것을 보면서 활동사진을 그 흐름대로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3.

홈페이지에 올릴 사진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사진을 여러장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 한명씩 사진 촬영 하지 않습니다.

마법 침대 만들기의 활동이라면

* 마법침대를 만들기 위해 천을 중앙에 두고 둘러앉아서 작업을 하는 모습 찍기

* 그 침대 위에 누워서 주문을 외우는 모습 찍기

이렇게 2가지의 활동만 찍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 마다 천 들고 있는 모습, 천 들고 붙이는 모습 개별로 몇장씩, 서로 붙이는 모습도 누구는 옆드려있고 누구는 서있고 주제명 설계해서 보드판에 서서 소개하는데 다리꼬고 있고 몸숙이고 있고. 아이를 찍은건지 보드판을 찍은건지

바닥을 찍은건지 알수 없는 사진에

그냥 아이들 노는 모습 찍은 것 뿐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 연수 이후 계획안을 보고 관리자가 먼저 수업 흐름을 교육적으로 성과적으로 정리하신 후에

선생님 이번 계획안에는 이 활동 사진과 이 활동 사진을 찍어봐도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던지

선생님들과 함께 연수 이후 계획안 수업 정리한번 협의식으로 하실 때 우리가 어떤 활동을 사진으로 찍으면

수업에 흐름이 잘 보일지를 계획하세요.

교사들은 수업을 하다보면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사진을 찍을 때 그냥 일단 아이들이 활동하고 있으면 찍습니다.

그런데.... 사진 이렇게 촬영하면 절대 교육적인 흐름이 잘 보이지 않을 뿐더러 나중에 원의 자료로 남을 수 있는 쓸만한 사진은 없게 됩니다.

관리자가 수업의 흐름을 인지하고

선생님 OOOO활동하는 수업은 언제해요? 그때 가서 사진좀 찍을게요.

라고 하면서 관리자가 수업의 흐름을 정리한 후 이 활동과 이활동을 찍으면 나중에 수업을 설명하기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정리하세요.

그렇게 교사와 관리자가 서로 길이 들여지면

교사들도 나중에는 본인이 사진 찍을 모습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때 찍게 됩니다.

마법침대 만드는 것 찍어야지라고 생각하면

사진은 그냥 마법침대 만들때 순서도 없이 막 찍어지면서 아이들 그냥 움직이고 놀고 있는 사진만 찍게 됩니다.

즉 이그림책이나 저 그림책이나 사진은 거의 똑같습니다.

다른 그림책 수업 사진과 전혀 다를거없이 활동도 책도 다른데 사진은 늘 같아보입니다.
 *다법침대 만들 때 천을 중앙에 놓고 다같이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침대에 천을 부착할 때 찍기
 *다이어리에 주제망 설계할 때 잘하는 아이의 다이어리 찍기 (손, 팔정도만 나오게)
 *다이어리 기록 완성된거 하나 찍기
 *침대에 누워서 주문을 말하거나 주문을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 찍기
 이런식으로 몇가지를 정하고 찍도록 하세요.

사진이 정말 그냥 계획없이 흐름없이 수업하는거 무작정 찍어놓고 그것을 홈페이지에 올리라고 하시면
 절대 활동은 깔끔해 보이지도 않고
 중요한건 나중에 원에서 설명회 자료로 쓰려고 해도
 쓸 수 없고 관리자가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 없는 사진들뿐입니다.
 우리는 수업 열심히 했는데 왜케 뭐가 없지? 이렇게 됩니다.
 (제발 사진 좀 꼼꼼히 살피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깊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관리자는 항상 포인트를 잡아서 그 포인트를 교사들에게 짚어주세요.
 이것저것 말하고 계획없이 설명하지 않고
 연수 받은 후 나름대로 수업에 흐름 간명하에 딱 정리한 후 이거와 이거는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야겠다
 라 정하신 다음 교사들과 연수 이후 협의 하시면서
 [이수업과 이수업은 사진을 찍었음 좋겠는데.
 아이들이랑 고양이 가면 만드는 것 사진 찍는데, 다함께 재료바구니 중앙에 놓고 둘러앉아서 소포지에 자유롭게 꾸미기 하는 사진이랑, 고양이 가면을 쓰고 자유
 롭게 고양이를 표현해내는 모습을 찍어봐요]
 이런식으로 정하도록 하십시오.

연수를 받은 후 활동방법 준비물을 하나하나 관리자가 신경쓰지 마십시오.
 어떤 재료로 이활동을 진행할까? 이런 세세한 계획은 교사의 몫입니다.
 관리자는 계획안 연수 받은 후 흐름만 간명하게 정리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모습으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사진을 보면 아이들은 책상에 재미없게 쪽 앉아서 모두 똑같이 꾸미고 있는 그런 활동은 삼가바랍니다.
 예를 들어 알파벳 액자 꾸미기는 서로 달라야합니다.
 알파벳 쓰는 것도 아이가 못쓰니까 교사가 써주는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알파벳은 교사의 손글씨로 모두 똑같고 재료도 구슬하나로 모두 똑같고 종이사이즈도 모두 똑같고
 똑같은 색연필로 그 주변을 모두 색칠하게 하는.....
 이것을 왜 해야할까요?
 알파벳 인지를 위해서도 아니고 구슬한번 만져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절대 의미없는 활동이 됩니다.

알파벳 꾸미기는 커스티는 다 알아에 알파벳이 상상을 의미했습니다.
 상상세계에 알파벳 액자가 있었고 자신이 정한 알파벳을 스스로 쓰게 하고 (아이들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상상을 동원에서 꾸미기 하라는 것입니다.
 그림책의 알파벳 액자가 어떻게 디자인 되어있고 어떤 무늬들이 독창적으로 있는지
 자세히 탐구하듯 그림을 살펴보면서 해야합니다.
 그 활동의 의미는 그 그림책이 가진 숨은 특성처럼 나의 알파벳에
 상상과 공상이 떠오를 만한 독창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교육의 성과는
 활동을 다양하게 하는것이 아니라
 하나를 제대로 수행하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몰입력으로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정말 활동을 빠르게 하게 됩니다.
 처음엔 교사가 많은 방법을 가르치고, 스스로 할 수 있게 기다려주고 함께하고 그러다보니 더됩니다.

활동 하나하나 시간을 투자해서 할 때
 관리자는 꼭! 활동의 깊이를 보는 눈을 가지시고 그것을 교사들에게
 즉흥적으로 피드백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연수를 들으실 때 수업의 흐름 그리고 제가 연수 중간에 교육적인 근거나 이유 등을 설명합니다.
 그것을 잘 들으십시오.
 어차피 교사들은 활동방법만 들리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관리자도 교사랑 똑같이 활동방법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세세히 알려고 하고 그 재료를 뭘로 할까를 혼자 고민하고
 하지 마십시오.

활동 사진을 보면서 우리의 교육을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합니다. (간단한 활동방법, 교육적 의미, 성과)
 그런데 사진이 그냥 애들 활동할 때 찍자라는 마음으로 찍으면
 사진양은 많겠지만
 절대 쓸만한 사진은 없습니다.

사진 조금만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